

# Planning [3] special

## '06년 미주지역 비육우전망

- By ROD SMITH  
번역 : 본회 업무팀

**축** 우농가는 비육우 공급의 팽창과 증가에 따른 주기변화와 2003년부터 사료자원으로 인해 호황기를 누려오던 시대가 2006년 끝났음을 직시해야한다.

이것이 비육우시장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사료가격은 톤당 80\$(또는 조금 낮게)정도에서 정립될 것이며 혹은 최근 농장에서는 톤당 90\$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텍사스대학교 농업경제전문가인 데이비드 앤더슨 교수에 따르면 쇠고기 생산량은 2006년부터 3년간 26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견됐다.

그는 지난달 쇠고기소요관련 발표에서 1997년 20년동안 지속되던 하락세에서 역전되었고 이후 6

년동안 줄곧 상승하다가 최근 몇주간 보합세에 있으며 내년의 비육우가격은 약간의 하락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미저리 대학의 농업경제학자인 글렌 그림스와 론 폴렌에 따르면 앤더슨의 주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1월부터 9까지 쇠고기 수요량이 2.8%하락하였고 그 중에서도 7월부터 9월까지 기간중에는 5.3%가 하락하였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텍사스 비육우농가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통상사업회의에서 쇠고기 수요량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니고 단지 정체국면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쇠고기 수요는 기타자원 즉 에너지 비용의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고 콜로라도 덴버의 사료시장정보센터 경제학회장인 짐로비는 주장하였고 또한 쇠고기 수요는 허리케인(카트리나와 리타)의 여파로 인한 미국의 석유생산량 및 보유량의 감소 그리고 가솔린의 가격의 영향으로 감소한것이며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쇠고기수요에는 여전히 악재가 존재하며 두가지 주요악재는 높은 가솔린 가격과 가정난방용 석유의 가격이며 특히 외식분야의 쇠고기수요에 현저히 작용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에너지비용은 수요의 점차적인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아직 현실화 되지는 않았지 않는가?” 라고 텍사스 롱스타운의 미래위험관리분석가인 다니엘 블랜저는 말했다

미저리주 세인트루이스의 A.G. Edwards & Sons의 분석가인 댄 버거트는 블래치의 주장에 쇠고기수요량은 최근 몇 년간 단지 증가가 멈춘것뿐이라고 대답했으며 10년 전에 비해 쇠고기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으며 비육우값이 얼마나 높아졌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수요량은 단지 잠깐 멈춰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 역사적 개요

수요적인 측면에 있어, 차년도의 또다른 중요한 영향요소로 '06년 중반이후 미국 및 미 국경지대에 대한 캐나다산 비육우 및 관련시장의 수입재개 효과를 들 수 있겠다.

앤더슨(아더 앤더슨, 세계5대 회계법인이며 다국적 컨설턴트 회사)측에 따르면, 기대치보단 덜하

게 사료수입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다시말해, 비록 사료수입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00~'02년 평균치보다 다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이러한 흐름은 하락세로 반전됨을 시현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미국산 쇠고기 선적량의 증가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을 상쇄시켜 캐나다산 수입물량의 정체국면 속 감소를 야기시키는 이유를 들 수 있겠다.

또다른 요인으로, 드넓게 펼쳐진 사료용 곡물의 대규모작황에 의한 캐나다산 쇠고기의 이동이 없는점도 들 수 있겠다.

쇠고기 수입시장 회복세와 포장업체(정육출하업체)의 반등세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도에는 66%이상의 점유율을 기대하기 어려움과 동시에 식부상황의 난조 또한 포장업체(정육 출하업자)의 악요인으로 맞물려 앞으로의 전망치는 그리 낙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는 관계없이 비육우사육자들은 “주기의 전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로비는 말했으며 그러므





로 비육우공급자들은 다음해에 쇠고기생산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료가격은 올해는 톤당 84.5\$, 내년에는 톤당 86.65\$ 그리고 2007년에는 톤당 84\$로 되어 비육우사양에 따른 손실이 올해 연말에서 2006년 상반기 또는 좀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캔사스 올라더의 컨설팅 사업가인 빌 헬밍은 “비육우시장의 주기에서 호황기는 지났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2006년에서 2007년의 월평균 소값은 백킬로당 75~90\$을 보일것이고 그 중 대부분은 75~85\$정도일 것이며 오히려 2006년 초에는 90\$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정도 범위에서 이익을 내기란 비육우사료의 영향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고 특히 사료비용보다 사육장비용이 더 확장은 좀더 광범위하게 될것인데 이는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사료가격과 쇠고기 가공비용이 최고가를 기록한 점에 주안을 들수 있으며 2003년에서 2004년 초반까지의 비육우사양 이익으로 사육장 여과 수용능력이 25%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확장은 정점에달해있고 내년 늦은 여름부터 부족해질것이며 앞으로 몇 년간 부족이 예상되므로 비육우사양가들에게 비육우입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있다.

이러한 웅색한 확장은 지난해 동안 축산시장정보센터(LMIC)의 주요계획이었고 2006년에는 어쨌든 작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로비는 말했다.

### 위기상황

사료시장은 단기간동안 약세를 경험했다. Vaught는 소매상과 포장업자들이 지난여름 비육

우가격에 대한 비관적상황처럼 가격을 자극하여 더 낮출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사육장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다음해에는 사료공급이 증가할 것이나 빠른시일내에 사육현황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2004년 송아지 생산량은 지난 55년동안 가장 적은 숫자를 보였고 따라서 2005년에는 약간 증가할 것이며 모우에서 송아지 생산숫자가 증가할 것이고 농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육우만이 캐나다에서 수입될 것이다.

그는 겨울에서 봄에 이르기까지 잠재적인 경기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지난달 본지에서 Vaught는 현금시세가 할증될 것을 염려하였는데 이는 항상 사육장에서 보유하고있는 가축에 “부당한 인센티브”를 가져오며 이를 위해 유통손실과 시장상황을 지원해야한다고 언급했다.

Bluntzer는 사육장의 “올해의 커다란 위협”을 지적했는데 낮은 옥수수 가격은 높은 사양비용을 절충시킬것이며 증가되는 에너지 비용은 쇠고기 유통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캐나다산 비육우는 미국시장에 유입되지 않을 것이며 농작물은 최소한의 수출회복세를 보일 것임을 언급하였다.

비육우농가들은 미래의 위협에 동요하지 말아야 하며 비육우시장을 신중히 살펴봐야한다고 Bluntzer는 언급했다.

Blach는 현상황은 쇠고기브랜드의 차별화 및 생산조직의 계열화를 통해 좀 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㉔

자료출처 : 「Feedstuffs」 11월 14일자